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한

국가의 경제수준과 여행수요 상관관계 조사

7조

201410717 유진영

201410752 정한솔

201615024 김혜주

201610656 정윤희

201780082 홍사유

저희 7조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한 점은
과연 국가의 경제 수준은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기반으로 경제지표와 나라의 문화를 미루어 보
았을 때, 앞으로의 여행 수요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했
습니다.



INDEX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정리를 하며 시사점을 제시하겠습니다.

01 서론

주제 선정 배경
가설 수립

서론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이며, 분석 방법에 있어 저희는 가설을 세워두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 수립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02 본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본론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었는 지를 소개하고

03 결론

결론

마지막으로 조사 분석 결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4 마무리

시사점
느낀점
자료 출처

01 서론

주제 선정 배경

주제 선정 배경에 앞서, 워라밸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러한 제목의 기사
이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워라밸을 지향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시사

또한 아래를 같이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전인 최근 3년간 수치를 보아도
위의 기사와는 관계없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났음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향하게 된 지는 시기
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으나, 해외여행시장의 수요는 상승세인 점
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를 알아보고자, 주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워라밸 바람, 근로시간 단축... 해외여행 늘렸다. "



01 서론

주제 선정 배경

구체적 주제 선정에 앞서 고민한 내용은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을 가지?
색다른 시각으로 패션과도 연관지어 보며,
임금과 시간이 주요인이라면 국가 경제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앞서 설명한 동기와 맞물려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여행.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사회 분위기가 여행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각 나
라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여행 수요 전망을 알아 보고자 결정



여행지의 SNS 해시태그
및 포털 검색어 기반 데이터 분석.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여행수요의 상관관계 분석.

여행지 트렌드와 의류산업과의
상관관계 분석.

국가 경제성장을 및 워라벨 지향에
따른 여행 수요 전망.



결정 주제

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 등장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이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여행 수요** 전망 분석.

01 서론

가설 수립



첫 번째로, 경제적 여유를 들어

가설1. 국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해외 여행의 수요와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간적 여유 및 선호도 차이를 들어,

가설2. 여행을 누구나 좋아하진 않을 것, 여행의 수요와 소비는 상대적으로 선호도 차이 및 시간적 여유가 중요.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여행의 수요와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분석대상

OECD 국가 ~개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경제수준 지표

1인당 국민총소득, 고용인원, 실업률, 연평균 임금



분석기간

경제수준 지표 : 2015 / 국민 여행 경험률 조회 : 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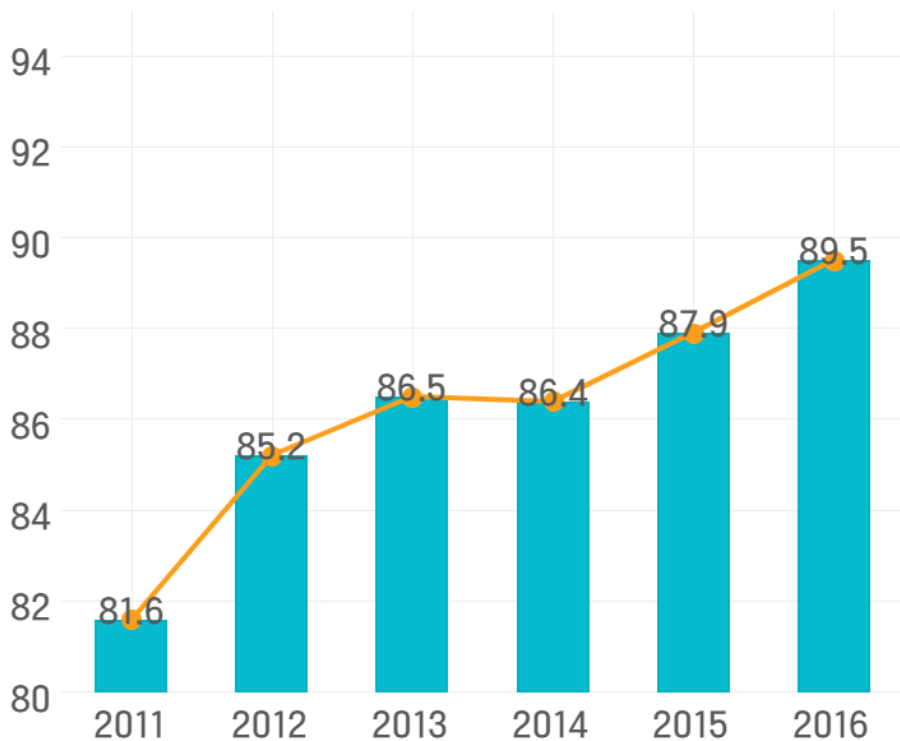
02 본론 데이터 수집

앞선 가설들 중 어느 것이 더 실제에 가까울 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었으며, 우선 가설 1을 검증해 보고자,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 고용인원 및 실업률 연평균 임금 등에 대해 조사하여 시각화해 비교 분석한 내용 설명할 것



02 본론 데이터 수집

국민 여행 경험률 조화(2011-2016)



국민들의 여행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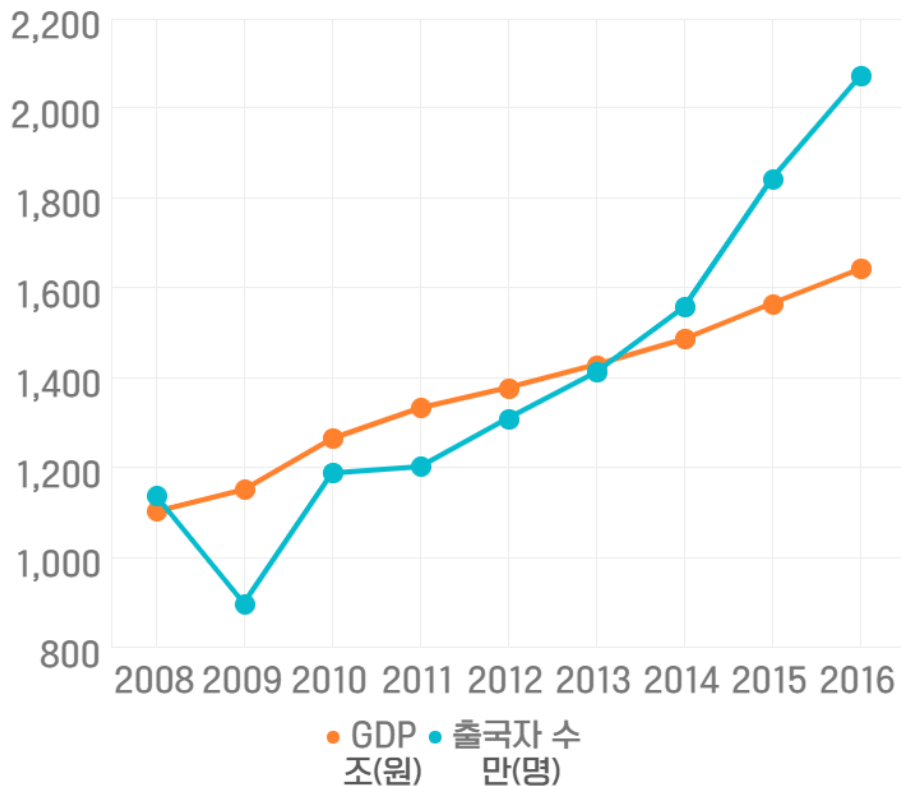
먼저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펴볼 것.

보시다시피 국민들의 여행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미루어 보아 여행에 대한 인식만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짐.



02 본론 데이터 수집

GDP와 내국인 출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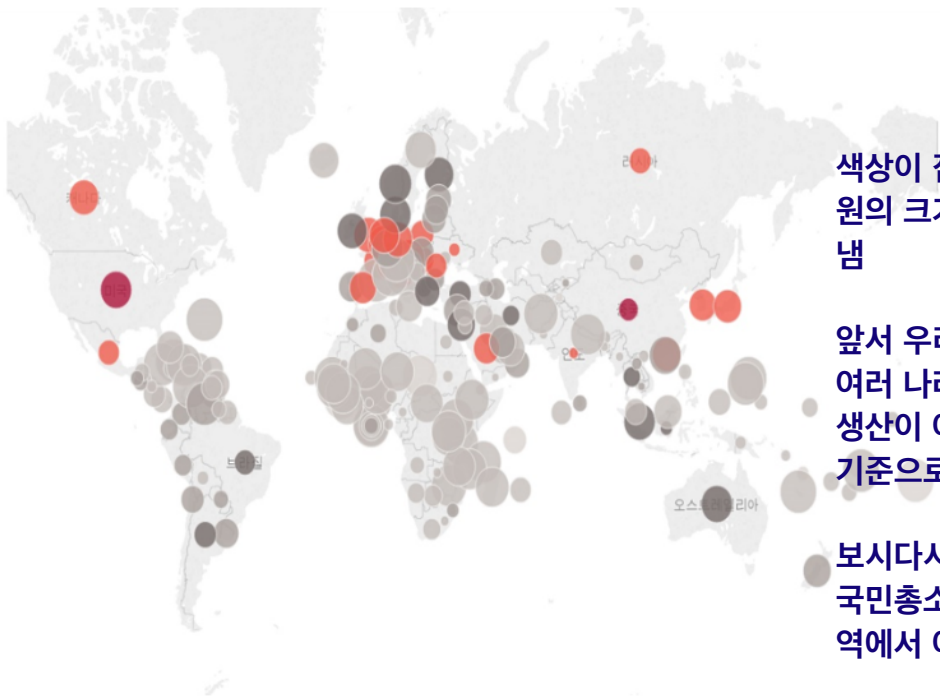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인 국내총생산량
과 내국인 출국자 수를 비교한 결과.

국민 소득과 해외여행 간 어느정도 비례관계
처럼 보이나, 2009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것만으로는 절대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음.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함.



1인당 국민총소득과 내국인 출입자 수(2015)



02 본론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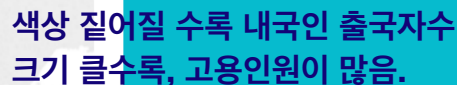
색상이 짙어질수록 출국자수 증가를 나타냄
원의 크기가 클수록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음을 나타냄

앞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을 살펴본 반면,
여러 나라를 포함하여 영토기준으로 살펴보는 국내총
생산이 아닌, 자국민의 해외수입을 포함한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알아보았음.

보시다시피 원의 크기가 가장 넓고 큰 분포를 보이는
국민총소득은 가장 높아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 지
역에서 여행의 수요가 뚜렷하지 않음



02 본론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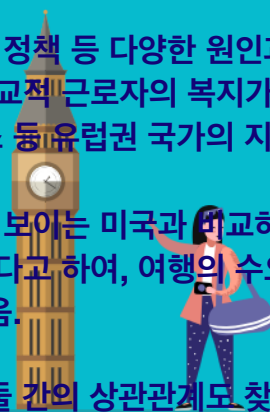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미국을 보면 내국인 출국
자수는 높으나,
고용인원은 유럽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모습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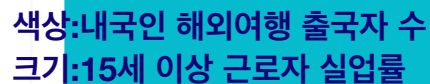
고용은 국가의 정책 등 다양한 원인과 맞물려 이루어지기에 비교적 근로자의 복지가 좋다고 알려진 독일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의 지표가 뚜렷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뚜렷이 보이는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고용이 활발하다고 하여, 여행의 수요가 진작되진 않는 것 같음.

이를 통해 이 둘 간의 상관관계도 찾을 수 없음.



02 본론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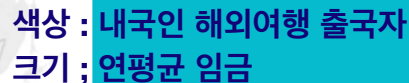


실업률은 동일한 크기이지만, 출국자수를 나타내는 색상의 차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이 둘간에도
같은 유럽 내에서 실업률이 비슷할 지라도,
여행에 대한 수요는 다르게 나타남.



연평균 임금별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2015)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해외여행을 갈 만한 여력이
생기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조사.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나 남아공같은 곳은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비례관계가 아니며,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 임금은 보통이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음.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도 분석의 원인을 제공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해서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에 의해 여행에 대한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 (ex. 시간적 여유, 여행지의 치안 등)
가설1 검증.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나라 별 시기의 정황이나 사회적 분위기 또한 정량적으로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음 파악.

결과적으로 가설1에 대하여 경제수준과 여행 수요의 절대적 관계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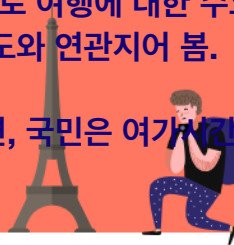
국가의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워라벨 등에 의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04

마무리 느낀 점

그렇다면 가설2는 어떨 지,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를 워라벨, 세대간 가치관 차이
등 개인의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민은 여가시간 가장 원하는 활동은 여행으로
꼽힘.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점을 느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점을 느꼈다.

더불어 청년세대는 다포세대 혹은 x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돈은 모아
봤자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확행, 옴로, 워라벨과 같은 삶의 태도를 지님.

이에 따른 관련 기관 조사결과,
청년세대의 버킷리스트 1위는 여행으로 두드러지지만, 아이러니하게
도 올 연말 조서된 바에 의하면 취준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
하게 되는 1위도 여행.

청년세대는 여행을 희망하지만, 실천을 하고 있는가 까지 진단하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관련 연령별 출국자 수를 살펴보면,
의외로 3040세대가 더욱 큰 지분을 차지함.



정한솔



유진영



정문혜



김혜주



홍사유

04

마무리

자료 출처

의외로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이다.
경제성장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중장년기 해외여행이 활발해진 이들이라면,
처음 선택한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여행에 모두 부합하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에 걸쳐있기도 함.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문화적인 요인
모두 갖춘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중.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한국투자증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재 경제가 하강국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 민간 소비지표는 2.7%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
실제 조사 중 자료를 참고하다 보면 출처에 따라 어느 정도 편향된 방향으로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통계자료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봄.

결론. 01. 가설 1 국가 경제수준과 여행의 수요는 크게 관련있지 않다.

결론 02. 가설 2 상대적으로 가설 1보다는 불황에도 성행하는 해외여행. 국가의 경제 수준보다, 워라밸 옰로 등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력도 있어야 함을 청년세대를 통해 알아보았고 굳이 비교하자면, 가설 2가 더 팩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짐.

시사점. 조사 과정 중 새로이 깨달은 점, 실제 출국자 수의 추이는 3040세대가 높다고 조사된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추정치를 실질적 목적까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며, 불황에도 이어져 온 과거 여행 수요에 관한 데이터와, 경제 비관 전망에도 민간소비지표는 상승세 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워라밸도 중시하고, 돈도 시간도 있는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

시사점2. 청년세대가 여행이라는 버킷리스트를 실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과 취준 부담.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면 청년세대의 여행 수요도 더욱 늘 것으로 여겨짐.